

# 완주군, 소하천 가꾸기 '우수'

### 공모 선정 국비 5억원 확보 "주민 적극 참여와 협조 덕"

완주군이 국민안전처에서 주관하는 '2016년도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 가꾸기'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국비 5억원을 확보했다.

2016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 가꾸기 공모에 선정된 신기 소하천은 비봉면 백도리에 위치해 있으며 성괴산에서 발원하여 담곡마을, 신기마을을 관통해 지하하천인 용화천으로 흘러 내려가는 소하천이다.

군은 '물길따라 추억이 속삭이는 마실걸을 신기 소하천'을 주제로 하천의 위치적 특성에 따라 풍류공간, 생태공간, 어울림공간이라는 구건별 세 가지 테마로 조성해 각각의 공간에 특색 있는 이야기를 불어넣었다.



신기 소하천은 지난해 신기마을, 비봉면사무소, 비봉초등학교가 '우리하천 함께 가꾸기' 협약식을 시작으로 주민 주도의 정기적인 하천 주변 정화 활동 및 어린 학생들이 토종어류를 방류하고 초화류를 식재하는 등 체험과 연계한 소하천 가꾸기 활동을 펼친 것이 공모 수상에 크게 기여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신기 소하천이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으로 선정된 가장 큰 이유는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

다"며 "앞으로도 설계단계부터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며 지낼 수 있는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을 조성하도록 계획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담곡마을과 신기마을을 하나의 공간으로 이어주고, 과거의 추억과 현재의 삶을 물길과도 같은 시간의 흐름으로 이어주는 신기소하천은 당초 하천이 협소하고 교량 노후화 및 통수단면이 부족하여 집중호우 시 잦은 범람으로 해마다 피해가 반복되는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구간이었다.

이에 완주군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30억원을 투자해 소하천 1.2km에 대해 교량 2개소, 압거 6개소, 홍수터 2개소, 하중도 1개소, 초화류 공원 1개소 등을 조성하는 등 수해로부터 안전하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었다.

/원주=이종복 기자

# 진안군-K-water, 용담호 수질관리 상생협력 협약

### 오염원 저감 등 4개 분야 걸쳐

진안군과 K-water(한국수자원공사 용담물관리단)은 27일 용담호 수질과 수생태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보전을 위해 용담호 물관리 상생발전 상호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민과 충남도민 등 약 150만여 명의 광역식수원인 용담호가 위치한 진안과 K-water 두 기관의 협약체결로 광역상수원의 수질관리에 더욱 큰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체결로 용담호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용담물관리단의 전문성과 기술력 그리고 진안군의 행정력을 극대화하여 용담호의 수질과 수생태계의 효율적인 보전관리 및 가치제고를 위해 양 기관의 상호협력과 상생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주요 협약내용은 재해예방, 오염원 저감사업 및 수자원 관리 기술교류 등 4개 분야에서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군은 이번 협약으로 기상이변에



따른 응급복구, 농촌지역 특성상 늘어나는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발굴부터 외래어종 퇴치, 치어방류 등의 수생태계 건강성 증진 등 용담호 수질관리를 위한 많은 분야에서 상호협력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용담호는 K-water에서 유역관리를 하고 있으며, 용담호로 유입되는 하천 등 상류 지역은 진안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 댐과 하천의 유역관

리 체계가 이원화되어 수질개선 정책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정부정책의 재정비로 비점오염 관리지원 및 용담호의 지속발전가능한 상수원관리 체계 유지를 위한 민·관 협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개별적 유역관리에서 댐과 하천의 통합적 유역관리의 방향 전환을 통해 진안군과 K-water간 상생협력력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완주군 '생명사랑 녹색마을' 현판식 신풍·원승·상삼·안남마을 등 농촌지역 자살예방활동 점화

완주군이 농약음독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사랑 녹색마을' 대표마을 현판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자살예방활동에 나선다.

완주군 건강증진센터에 따르면, 농약 보관에 있어서 안전관리 강화와 자살예방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27일 고산면 안남마을에서 농약음독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사랑 녹색마을' 대표마을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올해 신풍, 원승, 상삼, 안남 등 4개 마을을 '생명사랑 녹색마을'로 지정하고 총 146가구에 약 4,600만원 상당의 농약안전 보관함을 지급했다.

특히, 안남마을의 경우 전국적으로 농약안전보관함 및 폐농약 수거함이 보급된 10,000개체 마을로 선정되어 더욱 의미 있는 기념행사가 됐다.

군 관계자는 "추후 2개 마을 추가적으로 선정해 농촌지역의 자살예방과



자살로부터 안전한 완주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각 가정에 직접 방문해 보관함이나 수거함의 사용실태를 확인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서는 박성일 완주군

수, 군의원, 자살예방협회, 생명보험사회 공헌재단, 경찰, 읍·면·도·보건소 관계자, 4개 마을 이장단, 고산면 마을 주민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생명존중에 관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원주=이종복 기자

# 중국 환인현 방문단 진안홍삼 관심 표명

중국 환인민족자치현 부효명 현장 등 방문단 11명이 홍삼향방 산업 협의회 차 지난 26일 진안군을 방문하였다.

지난해 10월 홍삼축제 방문 이후 실질적인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인민정부 및 제약회사 관계자가 동행했다.

환인현 방문단은 1박2일 간의 일정으로 홍삼연구소와 관매장 견학 및 홍삼산업에 바탕으로 한 지역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청정무주의 맛 '반디한첩'

### 군, 대표 메뉴 10선 브랜드로 활용

무주군 대표 메뉴 브랜드 "청정무주 무주의 맛 반디한첩"이 탄생했다. 이와 함께 지역의 대표 메뉴 10선을 비롯해 테이크아웃 메뉴 2선을 확정하고 또 디자인 개발도 완료해 화제가 되고 있다.



"청정무주 무주의 맛 반디한첩"은 반디불이의 고장 무주에서 차려낸 정갈한 한 상이라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어죽정식과 민물매운탕, 다슬기정식, 산나물밥정식, 표고국밥, 표고버섯탕수육, 산나물장아찌보쌈, 산나물머부불고기, 소갈비찜, 두부머부정갈등 대표 메뉴 10선과 머부단팥빵과 천마쿠기 등 테이크아웃 2선을 상품화하는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인다.

군 문화관광과 관광육성 담당

김영광은 "2016 올해의 관광도시 무주,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개최지 무주군을 대표하는 먹거리 관광 상품 탄생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먹거리 상품을 통해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관내 외식업소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보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완주문화재단 '문화가 있는 날' 운영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재)완주문화재단(이사장 박성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문화가 있는 날' 참여활성과 간접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1,200만원을 지원받아 6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문화행사를 운영 할 예정이다.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실행과 홍보를 통해 문화 활성화와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재)완주문화재단에서는 이번 사업을 공연과 아트마켓, 교육체험활동 및 여름방학을 맞아 완주를 방문한 학생들, 요양시설 어르신 및 장애인, 특수학교 등 나이, 계층을 구분하지 않고 문화를 다양한 곳에서 체험

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아트작가 및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겐 사업의 협력자로서 '문화가 있는 날'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다.

추진일정은 문화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자 6월은 소양면의 요양시설, 7월 경천권역 마을, 8월 고산면의 학교, 9월 삼례읍시시장, 10월 우석대 문화관 아트홀 등 총 5회에 걸쳐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실시된다.

재단법인 완주문화재단 상임이사 권창훈은 "공연과 예술작품 및 체험활동을 통해 완주군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 향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향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 진안읍사무소 민원실 새단장

진안군 진안읍사무소(변장 김중구)는 지난 5월부터 추진한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27일부터 새롭게 단장된 민원실에서 민원서비스를 시작했다.

노후된 민원실을 리모델링하여 직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업무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리모델링이 추진되었다.

특히 기존 설치된 민원안내데스크가 기층 높이로 설치가 되어 있어 민원인이 민원발급 시 서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불편하였는데 이번 리모델링으로 민원 안내데스크 높이를 20cm 이상 낮춰 민원인의 눈높이 맞춰 민

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안내데스크에 진안 관광명소와 농특산물 사진을 부착하여 민원인 및 관광객들에게 진안을 알릴 수 있도록 제작하여 타 주민센터와는 다른 차별화를 두었다.

특히 민원실에 작은 북카페를 만들어 민원인들이 서류 발급 대기시간의 무료함을 해소하고 주민 만남의 장소로 누구나 이용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김중구 읍장은 "민원데스크의 높이를 조금 낮춘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닐지라도 이런 작은 변화가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최대한 소통하려는 행정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민원 편의를 위해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전주연탄은행, 장수군에 선풍기 기증

전주연탄은행(대표 윤춘국)과 소망봉사단(단장 이규탁)은 27일 오전 10시 장수군수실에서 선풍기 기증식을 가졌다.

이날 윤춘국 전주연탄은행 대표와 이규탁 전주연탄은행소망봉사단장은 최용득 장수군수에게 선풍기 51대(2백만원 상당)를 기증하고 "장수군 저소득층 가정과 사회복지시설 이용객

들의 시원한 여름나기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용득 장수군수는 "전달된 선풍기는 어려운 이웃들이 무더위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관내 지역아동센터 7개소와 관내 소외세대에 전달하겠다"며 전주연탄은행과 소망봉사단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 특별블로그

## 무주군,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위원 위촉

무주군은 2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제6기 무주군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 위촉식을 개최(15:00~)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은 황정수 공동위원장(무주군수)의 진행으로 민간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했으며 사회복지법인 법인추천이사제 전문위원회 구성안 등에 대한 심의가 진행돼 관심을 모았다.

황 공동위원장은 "무주군 지역사회보장 협의체가 군민들의 고단한 삶에 위안을 주고 사회적 약자에게 꿈과 행복을 주는 희망의 소통 창구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서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와 읍면협의체에 참여하는 모든 위원들과 소통하고 협업하는 가운데 실질적인 참여와 활동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는 관내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의하는 기구로, 제6기 무주군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는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 시설의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보장 연계를 중추적으로 담당하는 위원 25명으로 구성됐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군 뮤지컬 '년센스' 공연 성황

장수군은 지난 24일 장수한누리전당 산디관에서 뮤지컬 '년센스'를 공연해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공연은 장수한누리전당 2016년 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인 '문화회관 공연활성화 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돼 마련된 것으로 이날 오후 3시와 7시 두 차례에 걸쳐 1천여명이 공연을 관람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개고와 풍자가 섞인 재기발랄 다섯 수녀들의 포복절도할 공연을 펼쳐 관객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제공했다.

군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이 지역 내에서 고독의 문화예술 공연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공연을 유지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 진안군, 상반기 퇴임식 개최

진안군은 27일 퇴직자 및 가족, 동료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정원이 함께하는 2016년 상반기 퇴임식'을 3층 강당에서 가졌다.

이 자리에서 퇴임자와 가족,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날 들을 회상하고 감사의 마음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항로 군수는 "차라지스러운 진안군 공무원으로 지금까지 군민을 위해 보여준 열정으로 퇴임 이후에도 값진 인생을 살아가시길"을 당부하고 "비록 몸은 떠나더라도 진안군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변함없이 후배들을 응원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하광호 전 산촌소득담당과 이청자 전 상전월포보건진료소장은 "진안군의 공무원으로 살아왔던 30여 년의 세월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했으며, 지금까지 보내주신 사랑을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췌 설천파출소 여성범죄 예방 총력

무주경찰서(서장 한도연) 설천파출소 양희용 소장은 최근 사회적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대(對) 여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 화장실, 선택로와, 등산로 등 범죄가능 지역을 세분하여 정밀한 방범진단을 실시하고 취약시간대 순찰을 배가 하는 한편 설천면사무소와 협회, 여성안심귀갓길 주변 가로등 시설 확충을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인자치경찰과 아동안전지킴이 간담회를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